

4/1(금) 삼하 19-21장 허상과 실상

다윗은 압살롬의 반역을 통해 영적으로 각성합니다.

또한 왕국과 인물들의 실상을 직면하게 되었습니다.

다윗은 수면 아래 숨겨진 분열의 조짐들을 보았습니다.

사울의 친족, 북쪽 지파들의 본심이 표출되었습니다(16:5,7-8, 19:9-10, 20:1-2).

유다의 변심을 보며 영원한 아군이 없음을 깨달았습니다(15:10, 19:11-12, 20:5).

요압의 충심은 의심할 여지가 없으나 그는 늘 다윗을 앞서잡니다(19:5-7, 20:9-10).

통제되지 않는 군사력은 이전부터 다윗의 심기를 불편하게 했습니다(3:27,39).

다윗은 아들을 잃고도 슬픔을 추스를 새가 없었습니다.

더 큰 문제들이 발생하기 전에 왕국을 통합해야 했습니다(19:8).

가족도, 정치적인 고향도, 통일왕국이라는 형체도 모두 허상 같았습니다.

그는 당장 문제 삼을 수 없지만 드러난 일들을 기억해두었습니다.

(19:20, 왕상2:1-9)

다윗은 다시금 복잡한 정치적 쟁법 아래 놓였습니다.

하나님은 그의 마음이 갈피를 잡지 못하고 요동칠 때마다

지혜로운 여인들을 통해 길을 보이셨습니다(삼상25:32-34, 삼하14:13-17).

아벨 성읍 여인이 말한 대로 답은 <하나님의 말씀>에 있습니다(20:19, 신20:10-11).

사안이 아무리 복잡해 보여도 말씀에 길이 있습니다.

다윗은 밋세바 사건과 압살롬의 반역, 사울 집안의 죽음을 통해

죄에는 반드시 대가가 있음을 깨달았습니다(12:10-12,13:37,16:21-22,18:15, 21:1-14).

폭풍 같던 일련의 사건이 마무리 되며 다윗의 통치도 끝을 향합니다.

내 인생의 허상과 실상을 바로 보고 있습니까?

- ❶ 허상에 사로잡혀 거짓 안정을 느끼며 자신만만하지 않습니까?
- ❷ 실상을 깨닫고 충격과 두려움에 빠져 절망하지 않습니까?
- ❸ 허상과 실상을 바로 보고 대처할 능력은 어디로부터 옵니까?

시작기도 + 통독 삼하 19-21장